

## 롯데케미칼, 석유화학업계 최초 대기업-협력사 상생모델 첫 발!

- 롯데그룹 화학군을 비롯한 석유화학업계 전반 상생모델 확산

고용노동부와 롯데케미칼은 9월 26일(화) 롯데월드타워에서 ‘석유화학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교현 롯데그룹 화학군 HQ 총괄 대표이사(부회장)를 비롯한 8개 롯데그룹 화학군 대표이사, 협력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이중구조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조선업 상생협약이 타업종으로 확산된 첫 사례이다. 이번 선언은 24시간 설비가 가동·운영됨에 따라 하도급 비중이 높고, 근로조건 격차로 협력사의 인력난 등을 겪는 석유화학업계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전기(轉機)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공동선언 주요내용〉

- 롯데케미칼은 ①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② 협력사의 기술경쟁력 제고 ③ 공정거래질서 확립 ④ 중소기업플라스틱 업체와의 상생 등을 위한 방안 마련
- 협력업체는 ① 자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②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노력
- 정부는 롯데케미칼과 협력사가 마련한 실천과제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같은 대중적 처방이나 단순히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등은 현장의 큰 혼란을 초래할 뿐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법이 될 수 없고, 상생과 연대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사의 자율적 협력이 이루어질 때 이중구조의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상생과 연대의 파트너십을 보여준 롯데케미칼과 협력사의 상생모델이 다른 기업이나 업종·지역 단위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만간 발표될 상생임금위원회 권고문을 토대로 ‘공정한 상생의 노동시장’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교현 부회장은 “공동선언에 기초한 실천 내용들이 그룹 계열사 및 석유화학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롯데화학군 HQ’(헤드쿼터)도 선도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공동선언식 개요

[붙임2]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말

[붙임3] 석유화학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문

|       |                    |     |            |                                          |
|-------|--------------------|-----|------------|------------------------------------------|
| 담당 부서 | 노동개혁정책관<br>이종구조개선과 | 책임자 | 과 장        | 박은정 (044-202-7761)                       |
|       |                    | 담당자 | 서기관<br>사무관 | 손우성 (044-202-7762)<br>김두진 (044-202-7766) |



**붙임 1****공동선언식 개요**

□ 일시: '23. 9. 26.(화) 14:00 ~ 15:00

□ 장소: 롯데월드타워 31층 컨퍼런스A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

□ 참석자

○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개혁정책관, 서울동부지청장 등

○ (롯데케미칼) 김교현 롯데화학군 HQ 총괄 대표이사(부회장)

황진구 롯데케미칼 기초소재 대표이사(부사장)

이영준 롯데케미칼 첨단소재 대표이사(부사장)

\* 이 외에 롯데화학군 계열사 대표이사 6명 참석

○ (협력사) 이대희 (주)두본 대표이사

한동훈 (주)우진고분자 대표이사

○ (전문가) 박종식 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신홍순 사무총장 (화학바이오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 세부일정

\* 서약식 및 기념촬영까지 공개

| 시 간         |     | 내 용                        | 비 고   |
|-------------|-----|----------------------------|-------|
| 14:00~14:05 | 5'  | • 개회 및 영상 시청               | 사회자   |
| 14:05~14:07 | 2'  | • 참석자 소개                   | 참석자   |
| 14:07~14:16 | 9'  | • 인사 말씀 (장관 → 롯데케미칼 → 협력사) | 정부·기업 |
| 14:16~14:20 | 4'  | • 상생협의체 운영계획 발표            | 전문가   |
| 14:20~14:30 | 10' | • 공동선언문 서약식 및 기념 촬영        | 참석자   |
| 14:30~15:00 | 30' | • 토론 (대회의실로 이동)            | 비공개   |

## [인사 말씀]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 석유화학업의 이중구조 개선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뜻을 모아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김교현 롯데화학군 부회장님을 비롯하여, 롯데화학군 대표이사님들과 협력사 대표이사님들, 그리고 전문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노동시장 불공정 격차 완화와 상생협약]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고유의 산업·경제 구조와 함께 대기업과 협력사의 상생·협력을 가로막는 경직적인 노동법·제도, 노사 관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외환위기 이후 그 격차는 확대·재생산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이중구조는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여력을 감소시키고 중소기업 구인난과 청년 취업난을 심화시키는 등 노동시장의 활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이에, 노동시장에서 대기업·정규직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중소기업·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는 강화하는 '상생과 연대의 불공정 격차 해소'야말로

- 미래세대와 국민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불공정 격차는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이자 대기업 및 협력사 노·사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노사관계는 물론 노동시장 구조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같이 드러나는 현상을 해결하는 데만 집중하거나, 단순히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의 노동조합법 개정 등은 현장의 큰 혼란을 초래할 뿐,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 의식·관행·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혁정책과 상생과 연대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사의 협력이 어우러질 때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 정부는 노사법치주의 확립 및 노동규범의 현대화와 함께 대기업과 협력사 등 이해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방안을 모색하고,
  - 정부는 그 협의 과정과 결과의 이행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구상하였으며, 지난 2월 조선업 상생협약이라는 의미있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 [석유화학업으로의 상생협약 확산과 롯데케미칼의 선도적 참여]

- 정부는 이러한 상생협력을 기업·지역·업종 단위로 확산하기 위해 노사 및 전문가와 함께 노력해왔고,
  - 상생모델 확산의 첫 사례로, 석유화학업계를 대표하는 롯데케미칼과 협력사 간 상생협력을 위한 다짐을 하고자 합니다.
- 석유화학업은 자동차·전자·건설 등 주력산업에 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기간산업으로,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생산액과 수출액 비중이 상당하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산업입니다.

- 다만, 24시간 설비 가동·유지가 필요한 산업의 특성상 사내·사외 하도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 대기업과 협력사 간 근로조건 격차는 협력사의 인력난으로 이어지는 등 이중구조 심화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 롯데케미칼은 기업경쟁력을 넘어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위해 협력사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상호존중의 자세로 공급망 ESG 관리와 상생의지를 실천해온 기업입니다.
- 더 나아가, 대기업과 협력사 근로자 간 격차 완화를 위해 석유화학업계 최초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함께'하여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공동선언 및 상생협약체 운영]

- 오늘, 석유화학산업의 '성장-고용-복지 선순환구조 형성'을 위해 롯데케미칼과 협력사, 그리고 정부가 상생협력 노력을 약속합니다.
- 「롯데케미칼」은 <sup>1)</sup>협력사의 근로조건과 경쟁력 제고, <sup>2)</sup>공정 거래질서 확립, <sup>3)</sup>중소플라스틱업과의 상생방안 등을 마련·실행하고,
  - 「협력사」는 <sup>1)</sup>자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sup>2)</sup>전문성·생산성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며,
  - 「정부」는 롯데케미칼과 협력사가 함께 스스로 마련한 실천과제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이러한 공동선언의 의지를 토대로  
석유화학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의제를 발굴하고  
실천가능한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 「대기업-협력사-전문가-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사구시(實事求是)에 입각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 롯데케미칼과 협력사의 상생과 연대의 파트너십으로  
석유화학업계는 상생모델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 롯데케미칼과 협력사의 노력이 따뜻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롯데화학군, 나아가 업계 전반에 상생모델이 확산되길 바랍니다.
- 기업·지역·업종별 다양한 상생모델 확산과 더불어,  
상생임금위원회에서는 불공정 격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과제를 제안하는 권고문 마련 증으로,
  - 정부는 권고문을 토대로 속도감 있게  
'공정한 상생의 노동시장'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모레부터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시작됩니다.  
한 해 농사의 수확을 축하하고, 그 기쁨을 나누는 날입니다.
  - 추석을 앞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상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석유화학업계가 상생을 통한 발전과 번영을 수확하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롯데케미칼(주)과 협력업체, 롯데 화학군 HQ, 고용노동부는 석유화학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약속한 제반 사항의 실효성 있는 추진에 최선을 다한다.

1. 롯데케미칼(주)은 ①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및 안전 강화 등 근로조건 개선 ② 협력업체의 숙련인력 확보, 전문성·생산성 제고 등 기술경쟁력 제고 ③ 공정한 거래관계와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조성 ④ 중소플라스틱 기업과 상생을 포함한 업계 장기발전 모색 등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한다.
2. 협력업체는 롯데케미칼(주)과의 상생과 석유화학업계의 발전을 위해 ① 자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역량 강화 ② 연구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 노력 등 협력방안 마련에 적극 참여한다.
3. 롯데케미칼(주)과 협력업체는 구체적인 상호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상생협의체에 참여하는 등 「상생협력 실천협약」의 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한다.
4. 롯데 화학군 HQ는 이 선언에 기초한 실천 내용이 롯데화학군 계열사 및 석유화학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노력을 한다.
5. 정부는 롯데케미칼(주)을 비롯해 석유화학산업의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해,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과 실천협약의 이행에 상응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2023년 9월 26일